

## ■ WRI, 환경친화기업 투자 포럼 개최

- 지난 9월 18~19일 양일간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친화기업 투자 포럼을 개최함
  - 21세기의 핵심 유망 사업으로서의 '지속가능 개발사업' 부각 목적으로 개최된 포럼의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사업 모델의 우수성, 경쟁 우위, 시장 수요, 환경경영의 질, 기업의 사회-환경적 가치 등이었음
  - 南美의 WRI 후원 기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우수기업을 선정, 1~3위 입상자에 대해 각각 \$65,000 \$25,000 \$10,000 상금을 수여함
  - 참가를 희망하는 南美 기업들로부터 200여 사업 계획을 접수하였음
  - 유기 식품, 비모존림 원목, 생태 관광, 수중 양식, 그린 에너지 관련 업종 및 환경지원용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주제가 신청됨
- 주로 자연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1차산업 종사업체들이 환경친화 우수기업으로 입상함
  - 콜롬비아의 대규모 커피 생산업체인 Cafe Mesa de los Santos는 조류보호 및 유기농법을 인정 받았으며, Greenaqua社は 에쿠아도르의 새우 양식업체로서 최초로 100% 천연 생물질만 투입하여 양식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음
  - 이밖에도 볼리비아의 목재 바닥재 제조업체인 JOLYKA Bolivia S.R.L.는 아마존 삼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멕시코의 Noram de Mexico, S.A. de C.V.는 목탄 원료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정 받음
- 21세기 성장 산업 및 핵심 투자대상으로서의 환경친화적 기업 가치가 개발도상국가群 내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 A2R Fundos Ambientais, Advent International, 브라질 개발은행(BDB), Sao Paulo 증권거래소, 환경기업지원기금(EEAF), KPMG 컨설팅, 생태기업기금(EEF) 등 기 투자 내지는 투자계획을 가진 환경 관련 벤처 캐피탈 업체가 대거 참여하였음
  - 우리 나라에서도 기업의 가치평가 및 투자분석에서 지속 가능성, 환경친화성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므로 기업들의 환경경영이 더욱 요구됨

김성철(sckim@hri.co.kr 02-3669-4099)